

韓國의 白書を 말한다

崔 貞 泰

(國會圖書館 閱覽課)

I. 白書란

얼마전 某 日刊新聞社 修習記者 採用試驗에 다음과 같은 問題가 나왔다.

常識問題로서 간단한 要約의 定義만 내리면 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名答(?)이 나왔다.

“白書란?”

— 敗戰國이 勝戰國에게 내는 降服文書이다—

— 試驗答案紙에 答을 쓰지 않은 白紙와 같은것—

勿論 精確하고 빈틈없는 正答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위와같은 愚答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白書란 말이 우리의 귀에 익힌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 그러나 白書의 定義를 확히 모른다고 해서 크게 탓할수만 없겠다.

비슷한 例로 日本의 內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이 1960년 6월 中央調査社에 의뢰하여 「政府刊行物에 관한 調査」를 실시하였는데 全國의 人口 10萬 以上の 市에 살고 있는 18~59歲의 男子 3,000명을 面接하여 “政府 各 部處에서 發行하고 있는 각종 資料를 「政府刊行物」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7%가 알고 있다 하였고 「官報」를 알고 있습니까? 에 50%, 「國會議事錄」은 32%, 「白書」는 27%가 알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어디에서 보았습니까?”라는 물음에는 勤務處에서 40%, 官公署에서 12%, 圖書館에서 8%이고 學校에서는 7%가 보았다는 것이다.¹

文化國民임을 自處하는 日本國民들의 認識度가 이럴진데 이런 方面의 調査機構나 統計現況마저 없는 우리의 現實이기에 여기선 더 以上 學論치 않기로 하자.

원래 「白書」의 嚆矢는 英國에서 나온것으로서 英國政府가 一般 國民에게 내놓는 外交事情에 대하여 公文書의 表紙가 흰색(白色)이었기 때문에 “white paper”라고 불렀던 것이다².

英國政府는 이러한 外交事情을 國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마다 1회 30~40페이지의 公式文書로서 흰표지로 發刊하였으며 이웃 日本에서는 外務省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해마다 내고 있다. 이것은 그 表紙를 푸른색(靑色)으로 하였기 때문에 「外交白書」라 하지 않고 「外交靑書」라고 호칭하고 있다³. 물론 흰색이라 던지 푸른색에 어떤 특정한 뜻이 있어서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美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즉 英國議會 및 樞密院의 公式報告書의 푸른색 表紙에 유래하는 「靑書 (Blue Book)」와 下院의 議事錄, 日程表 따위의 「靑書 (Blue Paper)」를 地分하여⁴

白書(White Paper)는

① 英國議會의 議員들이 每日 發行하는 公支書로서 그날의 업무에 관계되는 豫定表의 Blue Paper 부분을 포함한다.

② 어떤 主題에 대하여 政策 또는 提案을 表明하는 英國政府刊行公文書에 대하여 그 表紙를 흰색으로 由來하였는것 이라고 칭한다⁵.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는 表紙의 색깔에 관계없이 實態報告書라는 정도의 의미로서 넓게는 政府 이외의 民間團體의 調査書에 이르기 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II. 우리 나라의 白書現況

우리 나라에서 白書가 처음 登場한 것은 筆者가 檢索

1) 日本圖書館協會 編, “參考圖書 ABC (8) 白書” 圖書館雜誌 v. 63 n.4 (1969. 4) p. 206.

2) 圖協 “圖書館用語集” p. 50

3) op. cit.,

4)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A.L.A. Chicago, 1943 p. 14

5) ibid., p. 149

年度別發刊實態

1972. 6. 1. 현재

年 度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48	計
部 數	1	14	12	15	13	12	2	7	4	—	2	—	1	—	1	—	1 85

한 바에 의하면 1948년 法務部에서 發行한 「法務白書」에서 비롯된다.

本書에는 白書로서의 이렇다할 특징은 없고 表紙는 3色으로 裝幀되어 있으며 便覽(Handbook)에 지나지 않아 法務部의 組織과 所管事務의 解説과 함께 所屬 各機關의 圖表와 關係 法令을 紹介하고 있다.

그 이후 이러한 白書類는 政府 當局에서 별 관심이 없었음인지 10년이 지나도록 발행실적이 1~2건에 불과하였으며 第三共和國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都合 85部를 發行하였다. (別表 I 參照).

그러면 光復 以後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내용의 어떤 白書를 刊行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別表 II” 白書發刊一覽表의 내용을 보면 모두 47種 85部인데 刊種別로 보아서 年間 등 連續刊行物이 14種이고 단 1회만 發刊된 것이 33種을 찾아하고 있다. 同名異種인 白書는 5種이 되어 「行政白書」의 경우 1962, 1964~1972년에 內閣企劃調整室에서, 1964년에 公報部에서, 1970~1971년에 總務處에서 各各 發行하였으며 「早害白書」는 1968년에 建設部, 1969년에 全羅南道에서 나왔고, 「犯罪白書」는 法務部에서 나오다가 大檢察

廳으로 移管 發行하였으며 「市政白書」는 釜山直割市와 大田市에서 年次的으로 各各 발행하고 있으며 「道政白書」는 慶尙南道와 忠淸南道에서 역시 年刊으로 해마다 發行하고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에서 發行하는 「市·道政白書」들은 마땅히 권장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나 「行政白書」의 경우 各 部處의 行政業務 P.R도 필요하지만 國民에게 代辯할 수 있는 政府의 한 기구에서 권장하여 포괄적으로 취급하였으면 어떨까 한다.

다시, 內容에 돌아와 主題分野別로 分析하면, 政治行政分野가 18種(38%)을 찾아하고 經濟分野가 9種(19%), 建設產業分野가 8種(17%), 保健社會分野가 9種(19%), 交通關係分野가 3種(7%)을 各各 點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重複되는 感은 있으나 特殊主題의 分野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즉, 「統一白書」, 「外資導入白書」, 「韓日會談白書」, 「早害白書」, 「上水道白書」, 「地下水開發白書」, 「海外就業白書」, 「人力進出白書」, 「鹽白書」, 「輕工業白書」, 「專賣事業白書」, 「公務員處遇改善白書」, 「近代化白書」 「새마을白書」 등이다.

“別表 II”

白書發刊一覽表

1972. 6. 1. 현재

白 書 名	發 行 所	發 行 年	페이지	規 格	備 考
① 統一白書	國會事務處	1967	765p.	26cm	國會 國土統一研究特別委員會 報告書
〃 (再版)	國會圖書館	1971	586p.	22cm	國會圖書館立法參考資料 제146호
② 國民에게 보내는 白書	企劃調整室	1969		46版	
③ 行政白書	企劃調整室	1962, 64, 1965~72	458p.	21cm	年間, 行政全般에 걸친 資料
④ 早害白書	〃	1968			早害對策의 當面問題
⑤ 建設白書	建設部	1969~70	281p.	21cm	建設分野에 대한 統計
⑥ 外資導入白書	經濟企劃院	1967	200p.	국판	
⑦ 經濟白書	〃	1967~70		신국판	※ 영문판병행출간
⑧ 公報白書	公報部	1962	385p.	4.6배판	公報部昇格(1961.6.22)이 후1962. 6. 30까지의 公보정책개관
⑨ 行政白書	〃	1964	409p.	21cm	
⑩ 韓日會談白書	〃	1965	259p.	〃	韓日會談의 必要性을 周知
⑪ 觀光白書	交通部	1965	141p.	26cm	「우리 나라 觀光사업에 대한 중요한 觀光행정
⑫ 交通白書	〃	1967~71	461p.	21cm	年刊, 交通行政全般의 실적 및 분석

⑬	航空白書	交通部	1964	81p.	26cm	프린트版, 항공행정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을 공개
⑭	國稅行政白書	國稅廳	1967~71	346p.	21cm	年刊, 국세행정업적 및 세정기본방향사업계획
⑮	畜産白書	農林部	1967	150p.	신국판	
⑯	靑少年白書	內務部	1965	257p.	21cm	靑少年善導를 위한 資料
⑰	地方自治白書	地方自治制度審議委員會	1968		국판	
⑱	市政白書	釜山直制市	1969~71	333p.	21cm	釜山市의 行政全般 「10大必勝事業」완수목표
⑲	〃	大田市	1968~71	269p.	21cm	大田市の 한해실적과 성과
⑳	道政白書	忠淸南道	1967~71	393p.	21cm	충청남도의 행정전반
㉑	〃	慶尙南道 (1967), (1970)	1968, 71	274p.	21cm	「生存行政」의 지침서
㉒	旱害白書	全羅南道	1969		국판	全羅南道の 旱害對策書
㉓	上水道白書	晉州市	1968~69		4.6배판	진주시의 상수도 計劃과 展望
㉔	地下水開發白書	水原市	1969	208p.	26cm	수원시의 지하수개발사업
㉕	犯罪白書	大檢察廳	1965, 1969~70	465p.	26cm	犯罪分析和 豫防을 위한 통계자료
㉖	文教行政白書	全羅南道教育委員會	1968		4.6배판	1964~1967년간의 全南文教行政資料
㉗	全南教育行政白書	〃	1968~69		〃	全南의 教育行政
㉘	法務白書 (4290년도)	法務部	1948	480p.	21cm	1947년도의 법무부 및 산하기관의 기구와 업무개관
㉙	犯罪白書	〃	1966		〃	〃
㉚	藥政白書	保健社會部	1969		4.6배판	〃
㉛	海外就業白書	勞動廳	1965		국판	海外就業의 관련자료
㉜	韓國勞動白書	〃	1967	300p.	〃	〃
㉝	人力進出白書	〃	1967	300p.	〃	〃
㉞	復興白書	復興部	1958	325p.	21cm	戰後經濟復興相과 經濟實態分析
㉟	商工白書	商工部	1965	604	〃	「일하는애」의 상공행정 전반에 걸친자료
㊱	鹽白書	〃	1964	332p.	30cm	1962鹽專賣가 解除되고 民營化하여 商工部로서의 鹽行政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제시
㊲	輕工業白書	〃	1967	500p.	4.6배판	〃
㊳	財政白書 (1959年度)	財務部	1960	356p.	21cm	1959년도의 재무행정
㊴	貯蓄白書	〃	1968		4.6배판	〃
㊵	專賣事業白書	專賣廳	1970	601p.	22cm	〃
㊶	公務員處遇改善白書	總務處	1967	222p.	21cm	副題: 公務員의 生活安定
㊷	行政白書	〃	1970~71			〃
㊸	체신백서	체신부	1970~71	567p.	21cm	체신업무전반, 年刊
㊹	병무행정백서	병무청	1971	285p.	21cm	1970. 8. 15 중앙병무청 창설, 병역의무의 중요성부각
㊺	근대화백서	내각기획조정실	1971	401p.	21cm	副題: 번영과 통일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㊻	보건사회행정백서	보건사회부	1971	311p.	21cm	副題: 보건사회행정의 실적과 전망
㊼	새마을백서	내무부	1971			〃

Ⅲ. 白書의 活用

白書는 政府機關 이외에서는 調査가 容易치 못하며 全國的이며 組織的인 調査가 된 結果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것은 巨額의 國家豫算을 投資하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活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體系의으로 分擔

하여 發行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豫算이 投入된 資料가 國民에게 적극적으로 紹介가 되어 活用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 白書의 題名조차 認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一部 發行者 側에서는 이 러 이러한 白書를 發行하여 國民에게 꼭 읽히도록 하자는 目的意識이 있어서 發行하였다기 보다 豫算이 우선

있었고 또한 다른 곳에서도 이미 내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發行한데 불과하며 特別活用面에 있어서는 度外視한 印象이 깊다. 따라서 國民이 무엇을 渴求하는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꼭 나와 줬으면 하고 바라는 곳에서는 아직 胎動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別로 이슈(issue)가 없는 分野에서는 二重으로 까지 刊行되는 것은 반드시 장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요즘처럼 公害問題가 世界的으로 抬頭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도 「公害白書」쯤은 마땅히 나와야겠고, 教育이 70年代 國運을 左右하는 現時點에서 教育白書」도 文教部에서 試圖해 볼직하다.

多幸히도 요즘처럼 京鄕各地에서 새마을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內務部에서 「새마을백서」를 내어 놓은 것은 快事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자료는 「住宅白書」, 「厚生白書」, 「輸出白書」, 「農業白書」, 「漁業白書」, 「消防白書」……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白書를 濫發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

이면 限定된 豫算에서 規定된 事業을 進行할려면 效果 있게 體係의이고 抱括的인 効用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規制나 아무런 論及이 없었지만 日本에 있어서는 한때 白書類가 너무 無秩序하게 亂發된 時期가 있었다.

閣議에서는 이 問題를 惹起시켜 法으로 規制키로 한 것이다.

즉 1963. 10. 24. 同 事務次官會議에서는 다음과 같이 政府는 白書의 權威維持와 安易한 發展에 制動을 건 것이다.⁶⁾

「白書類는 政治, 經濟, 社會의 實態를 國民에게 周知시키는 것을 主眼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將來의 豫測과 施策의 方向에 대하여는 付隨的으로 따르는 程度에 그친다. 장래의 豫測등에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一般的이고 抽象的인 意見에 그치는데 配慮함

(21면에 계속)

<프로필>

金 容 雲
漢陽大學校中央圖書館長

金容雲 館長은 日本 東京胎生. 日本에서 成長하여 早稻田大學을 비롯 美國 Auburn大學에서 碩士學位 를 받았고, 또 캐나다 Alberter 大學에서 博士學位 를 받기까지 실로 四海를 周流하며 學問의 妙理를 研究한 天才型的 數學者이다.

經歷으로는 全北大學校 教授로 在職하다가 다시 渡美, Wisconsin大學 教授를 역임한바 있고, 再次 歸國하여 漢陽大學校 教授로 赴臨한지 이제 3年이 되었다.

이같이 東西洋을 遍歷하며 數學者로서의 名聲을 떨친 金館長은 딱딱한 數學者의 인상과는 달리 또 圖書館學에 대한 該博한 知識과 깊은 造詣도 있다.



그리하여 72 年 3月3日字 發展段階에 있는 漢陽大學校中央圖書館의 重責에 拔擢되었던

것이다.

第6代 館長으로 就任하면서 그의 就任 第1聲은 圖書館運營은 모름지기 圖書館專門職 (司書)에게 맡겨 名實相符한 서어비스 爲主와 알찬 資料의 蒐集 및 斡旋을 圖謀하는데 있다고 하여 圖書館人의 士氣를 한층 높여주었을뿐 아니라 그러한 때가 속히 와야 한다는 것이 金館長의 持論이다. 또한 金館長은 어느 館長보다도 더 愜愜的이고 活動的인 面을 보여주는 情熱的인 型이기도 하다.

특히 金館長은 研究한 數學外에도 文學, 音樂, 體育等 專門家 못지 않은 知識과 一家見을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이 多才多能한 것은 모두 그의 眞摯한 學究的인 熱意와 教育者로서의 誠實性을 立證해 주는 것이며 外國에서 태어나 外國에서 學業을 쌓았지만 典型的인 韓國人의 風貌를 그대로 固守한채 소박하고 重厚한 人情味는 그 또 하나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남다른 精力과 活動力이 旺盛한 金館長은 各種 스포츠, 登山, 사냥등 폭넓은 趣味를 갖고 있으며 부인 이점수 여사와의 사이에 二男一女를 둔 단란한 家庭의 家長이기도 하다.

當年 46歲

主要論文으로는 美國의 「數學會誌」와 日本 「學士院」항가리 「學士院」에 發表한 位相學에 關한 論文等 多數가 있다. (殷)